

## 본당 소식

2024년 11월 교황님 기도지향 : '자녀를 잃은 모든 이'

아들 딸을 잃고 슬퍼하는 모든 부모가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평화와 위로를 얻도록 기도합니다.

- ♣ 미사 전,후 화장실을 이용하실 경우, 성가대쪽 출입문을 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의실은 전례위원, 그날 복사 외 출입 불가)
  - 미사 후, 성전 내 소등에 다 함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 위령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이며,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하는 은총의 시기입니다.
- ♣ 2년 동안 저희 본당을 이끌어주신 2023/24 회장단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감사장 증정 및 2025/26 회장단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새로이 봉사 해주실 새 사목위원회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모임/회의

- 오늘 미사 후: 청년구역 회의(오라토리오) 및 성서모임(사제관)
- 차주 미사 후: 25/26 회장단 첫 사목회의(오라토리오)

### 봉사자

- 계단, 화장실: 이민찬 비오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361,11€ • 교무금 00,00€

### 전례 성가

입당 : 64 (이스라엘 들으라)

봉헌 : 226 (하느님 자비하시니)

성체 : 187 (천사의 양식), 423 (천년도 당신 눈에는)

파견 : 227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 전례 봉사

이번 주일(11월 3일)	다음 주일(11월 10일)
1독서: 이민찬 비오	1독서: 정상현 안토니오
2독서: 윤지영 베레나	2독서: 우윤정 마리아
복 사: 강윤이 스텔라, 강윤아 헬레나	복 사: 변가인 헬레나, 정이한 다윗

##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총무: 변의용 베네딕토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2024년 11월 3일 (녹) 연중 제31주일

### 미사 전례

#### 본기도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은총을 베푸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합당히 섬기고,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화답송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채 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

### 제1독서 (신명기 6,2-6)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2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평생토록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분의 모든 규정과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오래 살 것이다.

3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것을 듣고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4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6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두어라.”

## 제2독서 (히브리서 7,23-28)

형제 여러분, 이전 계약의 23 사제들은  
죽음 때문에 직무를 계속할 수가 없어 그 수가 많았습니다.  
24 그러나 그분께서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영구한 사제직을 지니십니다.  
25 따라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살아 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 주십니다.  
26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사제가 필요하였습니다.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며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되신 대사제이십니다.  
27 그분께서는 다른 대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다음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신 자신을 바치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28 율법은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대사제로 세우지만,  
율법 다음에 이루어진 맹세의 그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드님을 대사제로 세웁니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 복음 (마르코 12,28ㄱ-34)

그때에 28 율법 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29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30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31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32 그러자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합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33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34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굽어살피시어, 주님 아래 하나로 모이고, 길 잃은 이들을 찾아 나서도록 이끌어 주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만물의 주님, 세계의 힘 있는 나라들을 정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이기적 욕심을 버리고 공동선을 실현하며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3. 부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 세상 부부들을 돌보아 주시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소중히 받아들이며, 주님의 일에 협조자가 되고 주님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4. 밀라노 한인성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스승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위령 성월의 의미를 되새기고 깊이 묵상하며, 참신앙과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천상의 성사로 저희를 새롭게 하셨으니  
저희에게 주님의 힘찬 능력을 드러내시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